

선박화재·해양오염 등 대응 위한 해양재난훈련 실시

- 선박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지자체, 관계기관 및 산하단체와 함께 5월 11일(목) 울산항에서 해양재난훈련을 실시한다.

이번 훈련은 선박사고와 해양오염사고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진행한다.

◆ 위험물운반선 접안 중 '기관실 화재 → 부두와 접촉 → 연료유 유출' 상황이 발생하여 인명구조, 화재진압, 해양오염 방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대응

참여기관은 사고 접수 후 상황판단회의, 위기경보 발령 및 인명구조·오염 방제 등 위기대응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, 최선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재난대응훈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력이 있는 외부평가위원(2명)이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하며 현장 공조체계, 재난대응지침 개선사항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낌없이 조언할 예정이다.

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“실제상황이라 생각하고 참여기관들의 역할과 유기적 대응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,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.” 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공동주관>	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민중 (044-200-5850)
		담당자	사무관	서상대 (044-200-5857)
<공동주관>	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	책임자	실 장	이동만 (052-228-5430)
		담당자	대 리	한정욱 (052-228-5433)
<해양오염>	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	오행록 (044-200-528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선용 (044-200-5283)

□ 추진배경

- 선박 화재발생, 해양오염 등 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하여 해수부, UPA, 해경 등 기관간 협업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훈련 추진

□ 훈련계획(안)**< 훈련상황 >**

◆ 위험물운반선 접안 중 '기관실 화재 → 부두와 접촉 → 연료유 유출' 상황이 발생하여 인명구조, 화재진압, 해양오염 방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대응

- (일시/장소) '23. 5. 11(목), 13:30 ~ 14:30 / 울산항 본항 6부두
- (주관기관) 해수부, 울산항만공사
- (참여기관) 울산광역시, 울산해수청, 울산해경서, 울산남부소방서, 해양환경공단, 울산중앙병원, 해운회사
- (훈련내용) ①선내 고립된 선원구조, ②익수자 해상구조, ③화재진압 및 육상으로 확산방지 조치, ④부두 주변 기름오염 방제 등 현장훈련

□ 참고사진

'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